

309 04 김민경

5/12 일

오늘은 뭐가 공부 안되는 날이었다. 학원 보충도 있었지만, 오늘 하루만 쉬어주고 친구들과 저녁 약속 시간만 다가오길 그냥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. 어제 본 한국사 시험에서 아슬 아슬 불고나니 피로도 몰려오고 무언보다. 중간고사 끝나고 미처 바르거나 시험 준비 들어가지게. 공부 안하면 당연한 거 같았다. 그래서 공부도 안된 거 토요일에 무한도전에서 한국사 특급이나 보며. 시간을 때우려 했다. 그 프로는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. 나보다 시너할 많은 가수들이 문제를 푸는데, 정말 이가 없었다. 신민희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 그렇긴 하지만 율곡이이 선생님의 어진이 친나임당 어진이 같은 걸 모르는 이가 많다는 걸 보고 정말 역사교육의 중요함을 몸으로 느꼈다. 난 수학 형 영리한 거 모르겠는데 더 캄피한게 역사를 모르는 거였는데. 그래서 진학감도 올 때가 많았고 매일 감사하며 사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았다. 티바 프로 해보 참 많은 걸 느끼고 동시에 간들 너무 잊고 싶은 건 아닌 거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. 매일 입세 치켜살고 성격에 얽매어 살다보니 역사가 그저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다가와서 거부감이 드는 거 같아서. 많이 안쓰럽고 이인규에 자꾸 역사수업을 끌어올리는 강향이 비참했다.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말,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'를 다들 떠올리며 역사를 알려고 해줬음 좋겠다고 나 또한 티바를 보며 많은 걸 얻고 반성했다.